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오리나라 농민이라면 두고 두고 후회할 UR협상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 WTO 체제에서 21세기 국제무역을 주도할 뉴 라운드 협상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의 중요성은 우리 농업의 생사에 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고기 국에 쌀밥 하면 북쪽에서는 이상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도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대표하는 품목이며, 민족의 열과 문화가 깃들여 있는 농산물이다. 이번 시애틀 회의에 준비된 초안이 주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번 한일 어업협정에서 우리의 협상수준이 세계 최하위급에 속한다는 것을 재 확인한바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욱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도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알기 때문에 초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인데, 서비스분야와 농업분야의 집중적인 협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안할 수 없다. 이번 농업분야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의 상당수준 감축(무세와 약속 포함)
-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 개도국 관심품목의 시장접근기회 확대
- 수출 보조의 상당수준 감축(수출 보조 철폐약속 포함)
- 무역 왜곡적인 국내 보조 대폭 감축
- 규범 개선(시장접근물량 관리, 특별 긴급관세의 운용과 대상품목, 수출경쟁 우회방지, 수출금지 제한 및 수출세 허용 보조 정책을 통한 식량 안보 및 환경 보전을 포함한 NTC 개도국 우대조치) 등이다.

이제 수입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 지구촌 시대에 꼭 국산 농산물 만을 고집해서 되느냐는 일반 국민의 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정부는 물론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쌍무협상은 국제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되고 반영되지만, 다자간 협상에서는 분위기에 따라 협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미국과 EU가 합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싫든 좋든 따라야 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리 농민들도 협상대표를 원망하다 체념해 버리는 것이 통례이었다.

우리와 동조하는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등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통적 농업 국가인 EU가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WTO 협상을 대비한 민간대책 기구가 출범하였고, 늦었지만 이제부터 협상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축산물이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데 관세의 인하 등 요구 사항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미국이 아직도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이번 기회에 농산물 수출에 활기를 띠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준비가 더욱 각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간 사용해 왔던 대규모 쫓기대회, 서명운동, 식발투쟁, 단식농성 등등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담에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회담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농림부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표어를 걸고, 국민 속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환경보전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UR협상때 보다는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수입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 지구촌 시대에 꼭 국산 농산물 만을 고집해서 되느냐는 일반 국민의 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정부는 물론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겠다.

지나 온 1000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이에 대한 준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양동**